

‘생태계 보고 순천갯벌’… 가을 행사 다채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 개최 순천만 ‘빨배림픽’·‘퐁어제’ 빨배 제작 시연 등 행사 다채 “어촌 고유 문화 보존할 것”

순천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계의 보고 순천갯벌의 유산구역인 거차와 와온마을 일원에서 순천만 빨배림픽과 퐁어제를 개최한다.

이번 빨배림픽과 퐁어제는 시민들의 참여 열기와 호평으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의 중반부를 맞아 순천갯벌의 가치를 새롭게 확산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세계유산 향유 프로그램이다.

빨배림픽은 갯벌체험장으로 유명한 별량면 순천만 거차빨배체험장에서 10월 19일 14~15시 개최되며, 퐁어제는 아름다운 노을이 인상적인 해룡면 와온마을 와온항에서 20일 9~12시에 진행된다.

먼저 빨배림픽은 순천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수천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넓은 갯벌을 이동하며 꼬막 등을 채취하는 갯벌어업의 전통어구이자 자연과의 공존 상징물인 빨배를 이용한 경주대회다.

경주는 노년부·장년부·청년부·청소년부의 4종목으로 나누어 남·여 2회씩 총 8경기가 진행되며, 이어서 순천갯벌 유산구역인 거차·신덕·무풍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5명씩 참여한 릴레이 계주도 이어진다.

체험장에서는 거차마을 주민들의 빨배 제작 시연과 빨배 채색, 풍물놀이, 체험부스(갈대 바람개비, 페이스 페인팅)도 운영된다.

또 순천만 빨배의 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순천갯벌 체험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학술 포럼도 개최된다. 빨배공작소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 9명이 참여해 ‘순천만 빨배, 문화가 되다’라는 주제로 18일 15~17시 순천만습지 자연생태관 2층에서 진행된다.

20일 개최되는 퐁어제는 순천만 일원에서 전승됐던 옛 퐁어제를 재현하는 행사로 그동안 전승자가 없어 단절된 행사를 이번 축전을 계기로 세계유산보존구역 마을의 전통을 복원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했다.

퐁어제는 길놀이,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한해의 퐁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풍



순천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계의 보고 순천갯벌의 유산구역인 거차와 와온마을 일원에서 순천만 빨배림픽과 퐁어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순천갯벌 빨배어업.

순천시 제공

어 제례가 10시부터 진행된다. 지역에서 세습무계로 5대째 전통을 이어온 김명례 선생 자녀의 별신굿과 제례, 와온·화포·대대마을 어민들의 해상 배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촌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소중한 전통 어업문화가 대부분 젊은 계층을 찾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리시는 순천만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유산콘텐츠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활동 제4회 자원봉사박람회서

여수시가 1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가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온기나눔으로 더 따뜻한 전남을 만들자!’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9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시는 지역행사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봉사자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인 ‘다섬이’를 활용한 키링(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사회관계망(SNS) 구독이벤트 등으로 섬박람회 홍보에 나섰다.

여수=이경기 기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구례군, 중간 보고회 개최

구례군은 지난 14일 구례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례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및 전라남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확보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으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실과소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운영사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구례군 탄소중립 비전 및 전략, 구례군 관리 권한 배출량 등을 보고했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구례군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검토하고 연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이 기후 위기 대응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행력에 중점을 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내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다양한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사진은 건강검진을 받는 시민.

장흥군 제공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건강강좌 풍성

18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다양한 건강강좌가 마련돼 관심이 모인다.

장흥군은 건강에 관심있는 방문객을 위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전문강사를 초청해 특별 건강강좌를 잇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진행되는 건강강좌는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은정 맨발걷기 사무총장, 양재진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선다.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홍성우 건강강좌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법을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된다.

20일 오전 10시와 21일 오후 2시에는

각각 김은정 맨발걷기 강좌, 양재진 전문의의 스트레스 주제 강좌가 열린다.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는 19일부터 20일까지 ‘미래를 위한 통합의료’를 주제로 학술 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도 개최된다.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올해 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박람회에는 전국 대학과 병원, 의료산업 업체, 보건소 등 11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한다.

전시관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건강증진관, 건강음식관, 힐링 테라피&의료산업관으로 구성했다.

18일 오후 2시 통합의학박람회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통합의학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한 주제영상과 통합과 상생 세레모니, 축하공연으로 이어진다.

축하공연에는 박지현, 현숙, 강민, 손태진, 황민호 등 유명 가수들이 나서 세대 공감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다양한 강연과 체험을 통해 통합의학을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통합의학박람회를 통해 질병의 치유는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방문객 대상 가을 이벤트 고흥우주발사전망대

고흥군은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고흥우주발사전망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홍보 이벤트를 추진한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남해안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관광지로서 높은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 2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홍보 이벤트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입구 행사 부스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망대를 관람한 후 입장권을 지참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가한 방문객에게는 오픈카(미니쿠퍼 컨버터블 4인승)를 타고 고흥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빙 체험 기회와 유자 캔들, 팍 성냥, 머그잔, 에코백 등 다양한 고흥 기념품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다도해의 절경도 감상하고 다양한 혜택과 기념품도 함께 받아 가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다회용기 사용…폐기물 감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최근 광양에서 열린 행사에 다회용기가 제공돼 일회용품 사용이 줄었다.

광양시는 제20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에 다회용기 15만6000여 개가 공급돼 음식 및 시음 부스, 푸드트럭에서 나온 일회용기 폐기물이 대폭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제23회 광양매화축제, 제23회 광양전어축제에는 각각 11만 개, 1만7000개의 다회용기가 공급됐으며 지난 8일 열린 광양시민의 날 행사에도 다회용기 3만 6000개가 사용됐다. 청사 내부도 마찬가지로 청사 내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와 다회용 음료 용기 공급으로 일회용 컵 사용률이 크게 줄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의 노력은 숯불구이축제장에서도 이어졌다.

축제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입점 업체에 사전에 안내됐다. 광양시는 접시, 면기, 수저·젓가락, 컵 등 총 12개 종류의 다양한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한편, 축제장 내 세척 및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푸드트럭과 체험부스 등의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푸드트럭과 체험 부스 등을 점검하며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해, 8만5000여 명이 찾은 축제장에서 일회용기 폐기물 17.1톤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광양시는 향후 예정된 일자리 박람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축제에도 다회용기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기에 일회용품 사용량을 대량 줄일 수 있었다”라며 “일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